



One-Body One-Spirit MAGAZINE | www.obos.or.kr

한마음한몸 | 2013년 겨울 | 스무번째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20
 WINTER

이주 특별한 손수건

아주 특별한 손수건 캠페인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는 캠페인입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작은 손수건이...



한 아이의 눈물을



한 아이의 인생을



한 아이의 밝은 내일에

₩ 30,000



- 3만 원씩 5명이면 장애아동 21명이 **특별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만 원씩 10명이면 옷이 없는 유치원 아이들 15명이 **교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3만 원씩 30명이면 빈곤가정 9곳이 **돼지**를 지원받아 **가계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본 캠페인 후원금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13개국 23개 사업에 지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손수건에 참여하는 방법

- 모금 기간 : 2013. 12. 15 ~ 2014. 02. 28
- 후 원 금 : 1계좌에 3만원 (1인당 2~3계좌 이상도 가능합니다.)
- 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 - 684 - 077777
(재)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연 락 처 : 02.727.2267 입금 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 캄보디아 반티프립업 장애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손수건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반티프립업은 전쟁 및 지뢰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인을 위해 직업기술교육 및 전인적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표지이야기

캄보디아 캄뵁초남에 살고 있는 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가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학교도 다니고, 뛰어놀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항상 꿈꿉니다.

한 마음 한 몸

2013년 겨울호

스무 번째 이야기

www.obos.or.kr



연말연시캠페인	0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사업 연말 결산	04
월별 중요 행사	
사업별 중요 결산	
현장속으로	08
조혈모세포 사업보고 및 학생 소감문	
희망의 씨앗	10
한일 자살예방 심포지엄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	
“OBOS”를 사는 사람들	12
조혈모세포, 장기기증 언제 하시렵니까?	
나눔가게 100호점 / 크리스마스 보이	
Special Story	14
희망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다 IV	
월드 On Air	16
단 하나의 꿈	
공감, 나누는 세상	18
연말연시캠페인 / 생애첫기부	
OBOS NEWS	2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통권 제20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2013년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사랑나눔

결산



1월

- 골프선수 이보미 프로 본부 홍보대사 위촉*(1/7)
- 평창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실시(1/26~29)
-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현장방문-캄보디아 (1/6~13), 몽골(1/13~19)
- 띠앗누리 15기 현지활동 파견 - 캄보디아(1/15~29)
- ADA(Asia Development Alliance)회의 참석-태국 (1/30~2/2)



2월

- 민간단체해외봉사단 국내교육 및 현지 파견* -캄보디아 (2/28)
- 생명나눔교육-한국가톨릭대학생연합회 외 1곳 (2/14~2/20)
- 자살예방연중캠페인-등촌1동성당(2월~12월)
- 자살예방센터 상담봉사자 신년미사(2/26)



3월

- 서울시 희망홍보 '장기기증 지하철광고'* (3월~6월)
-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연대 원주캠퍼스(3/27)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3/21)
- 파트너 회의 참석 및 현장방문-미얀마(3/3~8)



4월

- 장기 및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이문동 성당 외 7곳 (4/6~4/30)
- 생명나눔교육-노원노인종합복지관 외 1곳(4/17~4/22)
- 2013 장기기증 생명나눔 콘서트-홍대 상상마당 앞(4/20)
- 자살예방센터·청주교구 새생명지원센터 업무협약(4/17)
- 지구시민교육-금곡교(4/18)



5월

- 자살예방캠페인* - 수원교구 생명대회(5/5), 서울 명동거리(5/15)
- 헌미헌금 봉헌의 달 ● 장기 및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한국외국어대 외 6곳(5/1~5/24)
- 생명나눔교육-희망의 씨앗 플랜터즈 27기(5/16)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 가톨릭회관(5/25)
- 띠앗누리 놀이터 - 세상을 바꾸는 착한이야기(5/25)



6월

- 창립25주년 기념미사* (6/2) ● 장기 및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춘천성심병원 외 4곳(6/8~6/23)
- 2013 생명대행진-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6/8)
- 생명나눔교육-서울도시철도공사 외 4곳(6/18~6/29)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충주교구, 청주교구(6/3,5), 의정부교구 진건성당(6/30)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 울산 복산성당(6/26), 인천교구청(6/27)
-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현장방문 - 몽골(6/9~14), 캄보디아(6/16~23)



- **띠앗누리 16기 현지활동 파견-네팔**(7/26~8/9)
- **생명나눔 디자인展-국회의원화관**(7/8~7/12)
-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자 워크샵**(7/29)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청주교구 연수원**(7/3), **가톨릭화관**(7/8)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 서울청소년수련관**(7/3~5), **성령선교수녀회**(7/5~6)
- **지구시민교육-경안중학교**(7/10)



- **지구시민교육-입구정중(9월~11월), 계성여고(9월~11월)***
- 2013 생명콘서트 '아버지, 사랑합니다' 개최(9/10)
- **현미현금 봉헌의 날**
- **장기기증 캠페인-고대 구로병원 외 5곳**(9/2~9/23)
-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홍익대 외 6개 대학교**(9/10~30)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9/26)



- **2013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가톨릭의과대학 마리아홀**(11/24)
- **위령성월맞이 나눔캠페인 '위대한 유산'**
-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호남대 외 1개 대학교**(11/4~5)
- **생명나눔교육-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11/18)
- **전화-사이버상담봉사자 교육**(11/7,8)
- **자살예방센터·청주교구 2013 생명콘서트 개최**(11/9)
- **자살예방캠페인 - 대전대**(11/13), **서울 삼성동성당**(11/16~17)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불광동 성당**(11/18)
- **지구시민교육-길음중학교**(11/12)



- **생애 첫 기부 '1,000번째 가족' 탄생***
- **생명존중 캠페인-가톨릭스카우트야영대회**(8/7~10)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 서울청소년수련관**(8/22~23)



- **지구촌빈곤퇴치캠페인 참여**(10/12)
- **생명나눔교육-청주교구 생명학교 외 2곳**(10/2~10/16)
-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대전교구 한마음대축제 행사 외 1개 대학교**(10/6~11)
- **슬픔돌봄 사별가족 집단프로그램 시작**(10/11~12/27)
- **한일자살예방심포지엄 개최**(10/16)
- **본당 릴레이 자살예방캠페인-서울대교구 풍납동성당**(10/19~20)
-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 삼성동성당**(10/20, 27),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10/28)
- **파키스탄 PCS&HR 파트너 단체 대표 본부방문**(10/25)



- **2013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12/15~25)
-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아주 특별한 손수건'**(13/12~14/2)
- **자살예방센터·평화방송 공동기획 다큐 '아버지, 사랑합니다'** 방송(12/25)
- **CPDE(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참석-대만**(12/12~16)

2013년 한 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첫 마음으로
세상속에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2013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업 연말 결산



06

한마음
한몸

2013 국제개발협력 사업보고



본부는 후원금을 모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홍콩(아·태지역), 케냐 등 가난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6개국 12개 사업에 **총 8억7,3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두산 지정기탁) 및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몽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3개 사업에 **총 3억9,9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시리아 난민 지원과 필리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총 4억5,7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자원활동으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협력하여 캄보디아에 1명의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홍보/행정)을 파견하였습니다.

지구시민교육으로는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로 하여금 빈곤,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띠

앗누리 15기(캄보디아), 16기(네팔)를 진행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띠앗누리 경험자와 일반 청년들을 지구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구시민서포터즈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시민교육으로는 총 52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빈곤, 환경, 인권 등을 주제로 강의 및 조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부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정책제언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13 생명나눔운동 사업보고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사업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각막기증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높아진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장기기증 및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교구와 함께 '희망의 씨앗심기' 장기기증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희망홍보에 선정되어 서울시 지하철(1~2호선, 5~8호선)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를 약 3개월간 시행하여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함께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 생명토크콘서트'를 실시하여 기증자 유가족분들과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분들이 장기기증을 통한 감사와 사랑,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생명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대사회적인 운동단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7,138명이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습니다.(누적 : 126,084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사업

본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11년 연속 선정되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캠페인을 펼친 결과 총 2,372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11년 전체합계 : 34,224명)하였습니다. 본부의 모집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292명의 환우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나눔이 생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전국 본당· 학교·명동거리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캠페인을 시행하여 13,16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2013생명콘서트”와 “2013 가족사랑콘서트”를 개최하여 2,250여명이 문화행사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가톨릭언론사들과 함께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중캠페인을 펼쳐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전화상담(1599-3079), 사이버상담(www.3079.or.kr), 면접상담을 통해 2,400여 명이 자살위기에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

바라기 슬픔돌봄’ 사별가족 모임을 시작하여 20여 명의 가족이 소중한 이를 잃은 슬픔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활동가 양성 354명, 자살예방 상담봉사자 보수교육 340명, 자살예방 교육 강사 및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35명 등 총 729명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우지원사업

본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뇌사자 장기이식 환우 등 41명에게 총 3억140만원을 지원하여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성탄에도 소아병동 입원 환아 1,550명에게 4,800만원 상당의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2013 국내 사회복지지원 사업보고



사회복지 산하단체 및 사회사목 단체지원금으로 **5억6,9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생명운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재교육 및 생명의 신비상 기금으로 **1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도 **6,51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

우리의 나눔이 생명을 살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34,219명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를 모집하였고, 294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08

한마음
한몸

2003년~2013년 기증희망자현황

연도	기증희망자수
2003	2,000
2004	2,000
2005	2,500
2006	4,500
2007	4,700
2008	4,100
2009	3,000
2010	2,990
2011	3,146
2012	2,916
2013	2,367
계	34,219

2003년~2013년 실제기증자 현황

연도	기증방법		실기증자수
	골수	말초혈	
2003	·	·	
2004	3	·	3
2005	4	1	5
2006	4	3	7
2007	8	15	23
2008	8	28	36
2009	7	26	33
2010	1	33	34
2011	4	49	53
2012	3	49	46
2013	·	48	48
총 계	42	252	294
	294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통계연보 ※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식대기자	3,168	3,073	3,426	2,390	3,746	1,941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 한 1년 동안의 노력

본부는 총 33회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과 본부방문을 통해 2013년도 계획에 따른 총 2,300명 모집보다 많은 총 2,367명을 모집했다.(2013.12.17 기준 집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100분의 기증자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하림, 황유석, 이보라, 박태주, 천은비, 김상권, 고행희, 이희수, 김성현, 김준영, 박다예, 이민영, 박용찬, 이혜민, 유정민, 이혜진, 양성현, 민정기, 최다래, 임태섭, 심정인, 노현정, 공태훈, 조영강, 박승일, 정 훈, 유종호, 어철용, 박경남, 이아람, 임대영, 김선범, 김승훈, 이현하, 박성식, 엄희민, 손은하, 전치훈, 백지훈, 정권민, 최나리, 장석천, 박희숙, 진성룡, 조지환, 정 준, 이원준, 이정태, 김근영, 김대운, 노건욱, 김정수, 한슬기, 현정선, 배광규, 이재형, 최한별, 한원배, 민정아, 백준영, 김중용, 라성원, 하진성, 오혜영, 박효진, 권은비, 김미경, 김동한, 배성훈, 박미리내, 이윤호, 이재석, 신승호, 김인탁, 김기현, 민경덕, 김현아, 박상현, 정영웅, 임선훈, 이규돈, 전민경, 이시후, 이재은, 김명준, 김요한, 오혜민, 제갈국희, 이민영, 이종경, 조형기, 박승인, 김봉식, 김안식, 강주현, 심우상, 김형진, 김성경, 최영길, 문창식

신청문의전화 : 생명운동팀 02.727.2268

캠퍼스 외침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09

현장
속으로



손기훈 (가천대 가톨릭학생회 마티티아) 캠페인을 시작할 때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막상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그것은 기우였었습니다. 오히려 끝내고 가는 길에서 우리 동아리가 작은 일이지만, 생명을 나누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정소화 (연세대 원주캠퍼스 가톨릭학생회 태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캠페인을 준비하며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하여 많이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우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재인식 하게 하였다는 점과,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톨릭학생회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양봉식 (상명대 가톨릭학생회) 저는 조혈모세포와 인연이 깊습니다. 2011년에 실제로 아버님이 백혈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를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행사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이현석 (세종대 가톨릭학생회 레지나) 처음 캠페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증희망등록을 해주었고, 결과는 성공적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계속해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머리로만은 절대로 성경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혜경 (한국외대 가톨릭학생회 세인트) 처음 진행해보는 큰 행사에 동아리 인원수마저 많은 편이 아니라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캠페인에 동참해 주어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민 (이화여대 가톨릭학생회 쥬마) 저 하나의 작은 희생으로 맞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의 아픔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살면서 뜻 깊은 일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돕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도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 건강해서 도울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1회 한·일 자살예방 심포지엄

10

한마음
한몸

본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6일(수) 가톨릭 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한·일 자살예방 사업의 현황과 교회의 노력’을 주제로 제1회 한·일 자살예방 심포지엄을 열고,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조발제로 ‘한·일 자살예방사업의 발전 전략’을 발표한 정성환 신부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는 두 나라 교회가 손을 맞잡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자살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으며, “교회 전통적 입장에서 자사(자살)는 개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정해서 자유로운 결단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것을 ‘죄’라고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자살란 개인의 윤리적 결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이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일본교회의 인식 변화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자살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사사키 히사나가(아키타대 의학부) 교수는 “일본의 아키타현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민·학·관의 연계와 협력’에 의한 종합 대책을 시작했다”며 “자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확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소통과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요나가 후미코(카리타스 재팬 프로그램 담당)씨는 “일본 주교단은 2001년 발행한 소책자 「생명을 바라보는 자세」를 계기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에게도 장

례미사를 집전해주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기를 호소하는 등 자살자에 대한 교회 내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지역에 자살자 수가 증가했는데, 신자 여부를 떠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한 기도와 대책 마련, 자살자 유족을 위한 나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수정 부센터장(중앙자살예방센터)은 지난해 자살률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011년 사망 원인 중 4위가 자살일 만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 자살에 대한 원인 규명 미흡 ▲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 미비 ▲ 자살예방 교육 콘텐츠 부재 ▲ 선정적인 언론 보도 및 국민인식 부족 ▲ 범부처 차원의 대응 노력 부족 등을 한국의 자살예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토론발표에 나선 지영현(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는 “대부분의 자살은 어느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 사회의 죽음이다. 개인이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신부는 자살예방 방법으로 △ 지속적 감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사랑에 찬 관심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많은 소중한 논의들이 생명존중·생명수호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려는 노력의 초석이 되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희망의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2013 장기기증자 봉헌의날 행사’가 열린 가톨릭대 의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울려 퍼져~

11

희망의
씨앗

생명운동의 실천을 앞장서온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고 박해선(미카엘)씨 등 64명의 유가족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자들을 모시고 가톨릭대 의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3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1부 콘서트와 2부 미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김용태 신부는 강론을 통해 “우리 몸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에 장기기증은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하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기기증 서약과 그 고귀한 뜻이 사후에 다른 이에게 ‘희망의씨앗’이 되는 것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생명 토크 콘서트에서 가수 이용 씨는 “8월에 장가를 간 아들이 할아버지가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면 61세의 정정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고 아들 사랑을 하며 “콘서트 마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겠다.”고 말하여 마리아홀을 가득 메운 6백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원로가수 현미씨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군 콘서트에는 ‘서울성모병원간이식동인회



밴드’,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만든 ‘도너사운드’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서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생명 토크 콘서트’ 부제를 달고, 장기이식 담당의사와 코디네이터와의 대화로 엮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장기기증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쉽고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미사 뒤에 열린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생명운동본부와 나현식(호남대) 교수, 한국외대, 세종대, 홍익대, 가천대 가톨릭학생회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의회관 로비에서는 ‘사랑은 생명을 나눈다.’를 주제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과 학부생 29명이 만든 장기기증 홍보 티셔츠 전시회도 함께 열려서 행사에 참여한 많은 분이 기념촬영을 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혈모세포, 장기기증 언제 하시렵니까?

나현식 교수/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2

한마음
한몸



나현식 교수님 공로패 수상 장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
에 가장 담아두고 싶은 단어는 무
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은 “사랑, 행복, 건강, ...” 등 나름대로 좋은 단
어들로 답했습니다. 질문자인 제가 “나눔”이라
고 하면서, 영어 단어 “sharing”에 대해서 설명
해 주었습니다. 이 단어는 “나눔”과 “공유”란 두
단어의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눔
이 없을 때는 혼자 소유하게 되지만 이를 나누면
두 명, 세 명, 열 명에게 공유되고 모두가 함께 행
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눔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나눔이 바로 “생명 나눔”이라고 강
조해 주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콩팥(腎臟) 하나를 떼어냈습니
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해



호남대학교 2013년도 생명나눔운동 캠페인(왼쪽 5.13-14, 오른쪽 11.4)

서였다면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행위였
겠지만 아쉽게도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으며, 이후 생명나눔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
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위 사람
들에게 조혈모세포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야
기하곤 합니다. 고맙게도 젊은 학생들이 나이든
교직원들보다 생명 나눔에 훨씬 적극적이었습니
다. 생명 나눔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견하
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캠퍼스에서 교직원들
은 저를 만나면 가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면 일부러 다가가 “조혈모세포, 장기기증 언제
하시렵니까?” 하고 넌지시 묻곤 합니다.

생명 나눔은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환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
고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나눔운
동이 더욱 확산되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축 '나눔가게' 100호점 탄생



본부의 “나눔가게·나눔기업”이 2012년 1월 서울 은평구 수색동 ‘미성슈퍼’를 1호점으로 선정한 지 약 2년만에 드디어 100호점이 탄생 되었습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100호점의 주인공은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송화정’ 입니다.

‘송화정’은 한우를 전문으로 질 좋은 고기와 갈비탕 등의 식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육식당으로 이미 인근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송화정’ 대표이신 주해숙님은 큰 금액을 기부하지 못해 부끄럽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

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누군가를 도우라는 뜻으로 100호점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큰 응원과 관심을 주신 나눔가게·나눔기업 신청자 분들과, 이를 통해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나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3

OBOS를
사는
사람들



-정성하 스테파노 母 조은모 미카엘라-

크리스마스 보이



2008년 12월 25일 00시 03분 크리스마스 보이인 성하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 크리스마스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50일경이 지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서거 소식이 들려오

고 뉴스를 통해 명동성당에 가나인 줄을 보면서 그분이 생전에 저희에게 남긴 소중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님이 생전에 하시는 말씀과 업적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걸음 뒤에서 바라만 보던 성당에 2009년 3월에 교리공부를 신청하고 아기와 함께 저희 세 식구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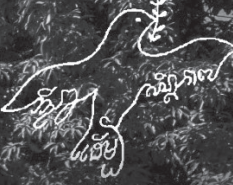
처음부터 돌잔치보다는 나눔을 생각하고 있던 저희는 주보에서 ‘사랑 나눔의 시작 생애 첫 기부’를 보게 되었습니

다. 성하의 생일에 찾아간 그 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 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일찍 나눔을 시작한 성하가 더 대단하며 말씀하시는 신부님, 수녀님의 인자하신 웃음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성하 통장으로 적금을 넣어서 크리스마스 무렵 명동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나눔을 하는 게 연례행사가 된 우리 가족. 어느덧 다섯 번째 나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벽에 늘어가는 성하 성장사진 액자들을 보며 온 가족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추기경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탄절에 태어난 성하는 매년 성탄절만 되면 매달 열심히 적립한 적금을 가지고 본부를 찾아옵니다. 씩씩하고 무력 무력 자라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빕니다.

희망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다



គ្រប់យ៉ាងសម្រាប់
“Everything for peace”



14

한마음
한몸

글 민경일 신부¹⁾, 오인돈 신부²⁾

사진제공 : 임종진 작가



캄보디아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설립한지 21년, 그동안 많은 장애인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해 온 센터는 본부와 함께 앞으로도 캄보디아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졸업생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제화반과 휴대폰 수리반을 시작하였다. 새 기술 과목인 제화반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수공 제화 기술을 익히고 신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으며, 휴대폰 수리반을 통해 시대 수요에 맞게 학생들은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

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리에 관한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와 사회 인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졸업한 학생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을 때, 예전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미래

빠르게 발전하는 캄보디아 사회에 발맞추어 이제는 점차적으로 지체장애인들도 일반 교육 시스템에 흡수되고 사회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체장애인들의 숫자도 점차 적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1) 2002년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어 지난 2009년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부분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 천주교 예수회 수도회 소속으로 2003년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어 지난 2008년부터 JSC(Jesuit Service Cambodia) 소속의 반티에이 브리업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여전히 센터에 요구되는 역할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되, 그 수혜 범위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센터가 위치해 있는 꾀달 주를 중심으로 주변의 6개 주에서만 장애인들을 선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넓혀 캄보디아 전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가난한 사람들도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센터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일부 NGO들의 활동 이외에는 캄보디아 사회 내에서 철저히 소외 받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면서 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고려된다. 이에 센터는 20주년을 맞아 센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았으며, 여러 리서치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졸업생 출신인 두 직원이 한국의 장애인복지기관에서 2012년 11월부터 3개월 간 해외 연수를 수행하였다. 센터 졸업생 출신인 직원들이 자신들보다 더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위해 일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이다. 센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과 지역 리더십을 키워서 캄보디아 직원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인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게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본부는 권리와 자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센터와의 이 협력사업이 사업의 형태면에서도 좀 더 발전되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에 특별히 더욱 강조되고 있는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방법(rights-based approach)’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센터의 사업이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면, 센터의 사업은 캄보디아에서는 취

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민사회에도 그 기여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반티에이 뿌리업의 참 의미

센터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게도 큰 의미가 되고 있다. 나라별로 지부를 설립하는 대신에 현지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본부에게 센터와의 협력의 여정은 내부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부의 협력은 단지 기금 지원뿐이 아니라, 연중 수차례의 방문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지의 행정 체계나 기타 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본부는 센터에게, 그리고 센터는 다시 본부에게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크메르어로 반티에이(Banteay)는 ‘센터’라는 뜻이며, 뿌리업(Prieb)은 ‘비둘기’라는 뜻이다. 곧 이곳은 전쟁 때 통신 용도로 사용되던 전령 비둘기의 센터이며, 당시 정부는 이곳을 폭약 저장 창고로도 사용했고 심지어는 감옥과 킬링필드 용도로도 사용해왔던 장소이다.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한 JRS의 멤버는 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었는데,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에서의 전략적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비둘기는 이제 온 나라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의 상징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전쟁 때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이들이 이제 이 센터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들 스스로도 새로운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단순히 직업기술학교나 센터를 넘어 캄보디아와 나아가 세계에 참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평화의 집이길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며 꿈꾸는 것이라 믿는다. 끝. ⊕

연말연시 캠페인 “아주 특별한 손수건”

단 하나의 꿈~



16

한마음
한몸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모(Moe Moe)입니다. 여러분께 짧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기쁨과 자유로 가득했던 제 어린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움, 식량 그리고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것, 산 오르기, 잠자기, 놀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목표도 없이, 그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사랑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작은 열정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간호사인 저의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고모는 고아원의 원장님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어느 여름 날,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아들과 장애인들과 지내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한 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 걱정 없이 기쁘게 일할 때 제 스스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교사양성과정을 수녀님께 소개받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사 훈련생으로 받아들여져 11개월 간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여러 지역을 돌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센터, 공부방 등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울고 웃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학년 파이코민(Pai Ko Min)은 특별학생으로 지정된 아이였어요. 말을 잘 듣지 않고 과민행동 증상을 보이며 수업에 거의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6개월 후에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이코민은 장차 신부님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자,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직 미얀마의 무수히 많은 아동과 청소년, 특히 저와 같은 고아들이 배움을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움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단 하나 꿈입니다.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미얀마에서 모모(Meo Meo)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미얀마 양곤대교구는 2008년부터 교사훈련프로그램(Teachers Training Course : TTC)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미얀마의 제한적인 정규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취약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양곤대교구와 싱가폴의 작은예수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본부는 이 사업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3명의 교사훈련생을 배출하였고, 그중에 46명의 교사들이 미얀마 6개교구 16개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 빈곤퇴치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2013.12.15 ~ 2014.02.28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밝은 내일에
손 흔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주 특별한 손수건

18

한마음
한몸



아주 특별한 손수건 캠페인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는 캠페인입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작은 손수건이 ..

₩ 30,000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눈물을

2013년 12월, 여러분이 사랑으로 닦아주세요.

배고픔, 목마름, 아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이 모든 것은 가난에서 비롯됩니다. 가난에 의한 아픔은 우리의 굳건한 지지와 적절한 도움만 있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도 스스로의 삶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변화를 가져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절대 빈곤 속에 희망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짓고, 교복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고, 손을 건네 일으켜주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흔들어 주자는 '아주 특별한 손수건'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 본 캠페인은 2013.12.15.~2014.2.28까지 진행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연말연시 모금캠페인입니다.

- **모금 기간** : 2013.12.15~2014. 02.28
- **후 원 금** : 1계좌에 3만원 (1인당 2~3계좌 이상도 가능합니다.)
- **계좌 안내** : 우리은행 1005-684-077777 (재)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연 락 처** : 02.727.2267 입금 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손수건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13개국 23개 사업에 지원됩니다.

생애 첫 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20

한마음
한몸

- 이충민 세라피노 (2012.10.12생
父 이강표/母 한규진), 100만원
- 손채윤 (2013.06.16생
父 손승현/母 공성주), 50만원
- 은서은 (2012.08.04생
父 온기범/母 김미란), 10만원
- 정선우 (2012.07.31생
父 정진석/母 이승연), 27만원
- 이정엽 안드레아 (2012.09.16생
父 이익재/母 김민희), 300만원
- 고은혜 (2013.05.19생
父 고재우/母 김이수), 20만원
- 이지호 릴리안 (2012.09.06생
父 이종섭/母 이정민), 45만원
- 엄서준 (2013.06.08생
父 엄태웅/母 김혜성), 100만원
- 조성연 (2011.09.06생
父 조남형/母 김미옥), 10만원
- 박지유 (2013.07.12생
父 박동현/母 정미영), 10만원
- 공제준 이나시오 (2012.09.26생
父 공진표/母 박지순), 100만원
- 박솔 헬리나 (2012.07.24생
父 박봉철/母 박지현), 50만원
- 조인희 가브리엘라 (2010.12.26생
父 조현상/母 김유영), 10만원
- 조수인 마키엘라 (2012.08.05생
父 조현상/母 김유영), 10만원
- 이서준 (2012.09.28생
父 이주원/母 이승은), 100만원
- 이지유 (2012.07.28생
父 이상엽/母 최승이), 50만원
- 강지호 레오 (2008.01.17생
父 강석성/母 이지향), 30만원
- 강지훈 랄프 (2012.09.24생
父 강석성/母 이지향), 30만원
- 윤현서 (2013.06.04생
父 윤종일/母 권은경), 10만원
- 박지연 라파엘라 (2012.02.23생
父 박진형/母 조유미), 100만원
- 권성우 (2012.10.02생
父 권혁돈/母 윤옥련), 102만원
- 김효경 데레사 (2012.10.11생
父 김수완/母 김미선), 50만원
- 이소현 소피아 (2012.08.30생
父 이지훈/母 홍정숙), 10만원
- 문지호 사도요한 (2012.09.27생
父 문성영/母 백지현), 100만원
- 윤나리 가브리엘라 (2012.09.29생

- 父 윤병훈/母 박혜영), 365천원
- 김수현 (2012.07.04생
父 김도훈/母 김진화), 100만원
- 신지섭 (2013.07.01생
父 신동일/母 박수민), 100만원
- 나혜원 마리스텔라 (2010.01.02생
父 나종욱/母 진은미), 20만원
- 나혜울 (2012.09.07생
父 나종욱/母 진은미), 30만원
- 연재원 플로라 (2012.10.23생
父 연상희/母 김미연), 30만원
- 이아인 레아 (2011.10.30생
父 이종민/母 이지훈), 20만원
- 김완 (2012.10.09생
父 김마루/母 이현정), 50만원
- 이주형 다니엘 (2012.07.24생
父 이동은/母 이나영), 10만원
- 김어진 (2012.10.19생
父 김정우/母 남혜진), 50만원
- 고인호 미카엘 (2002.05.03생
祖母 홍화자 엘리사벳), 10만원
- 고윤호 라파엘 (2006.02.06생
祖母 홍화자 엘리사벳), 10만원
- 김가빈 (2013.09.05생
父 김태훈/母 허송이), 20만원
- 심상균 레오 (2007.06.06생
父 심주찬/母 김은주), 30만원
- 신재아 (2012.10.17생
父 신부형/母 변정희), 100만원
- 김서윤 데레사 (2012.09.22생
父 김도형/母 홍태이), 100만원
- 하나 (출산예정일 2014.04.30
祖母 김현영 카타리나), 10만원
- 두리 (출산예정일 2014.04.30
祖母 김현영 카타리나), 10만원
- 이서준 (2012.10.15생
父 이승훈/母 박경진), 50만원
- 윤수환 프란치스코 (2013.07.02생
父 윤정호/母 양란), 100만원
- 이한솔 디모테오 (2012.10.19생
父 이진원/母 이나리), 50만원
- 김은성 가브리엘 (2013.07.09생
祖母 서춘임 히야틴타), 10만원
- 이주호 (2012.09.17생
父 이진현/母 이은주), 100만원
- 백주하 베네딕토 (2004.08.03생
父 백인호/母 최경심), 10만원
- 이세린 (2012.09.21생
父 이상권/母 임혜영), 30만원

- 이도경 다니엘 (2011.10.10생
父 이민채/母 이수현), 100만원
- 김은재 테레시아 (2012.04.19생
父 김한울/母 김성희), 30만원
- 곽윤후 요한 (2013.05.31생
父 곽승희/母 김유경), 100만원
- 남경민 (2012.11.29생
祖母 홍철기 마리아), 500만원
- 주혜원 (2012.09.11생
父 주재현/母 신지선), 365만원
- 김응울 가브리엘 (2012.09.14생
父 김승식/母 박찬민), 100만원
- 송재인 (2012.10.14생
父 송상훈/母 허수영), 50만원
- 이서진 프토타시오 (2012.11.27생
父 이승태/母 서종욱), 100만원
- 이다윤 글라라 (2012.07.24생
父 이정원/母 이근정), 50만원
- 양준우 보니파시오 (2012.06.05생
父 양정민/母 김주현), 50만원
- 신지아 (2013.07.04생
父 신동익/母 임혜수), 30만원
- 김다은 마리스텔라 (2012.09.05생
父 김종현/母 이지인), 15만원
- 백준영 (2013.05.05생
父 백문규/母 이진아), 30만원
- 정윤재 가브리엘 (2012.10.12생
父 정창욱/母 윤혜준), 100만원
- 성예준 가브리엘라 (2012.10.24생
父 성익환/母 이신혜), 100만원
- 이도경 마르티노 (2012.11.08생
父 이강현/母 김진주), 20만원
- 최가운 (2013.08.08생
父 최성훈/母 송미영), 10만원
- 신윤빈 (2012.10.28생
父 신준일/母 유미영), 20만원
- 고대윤 루가 (2012.10.25생
父 고재규/母 이혜련), 42만4천원
- 김민수 요한 (2004.10.18생
父 김태호/母 이경진), 금액비공개
- 김인영 체칠리아 (2000.10.21생
父 김창진/母 권은미), 20만원
- 이윤 레오폴드 (2012.11.15생
父 이승환/母 이윤조), 100만원
- 베베 (출산예정일 2014.04.24.
父 이종진/母 신미영), 10만원
- 노동혁 사도요한 (2013.11.02생

- 父 노성수/母 김리나), 50만원
- 김태인 비비아나 (2012.10.21생
父 김현석/母 김현정), 30만원
- 김주원 (2012.11.09생
父 김기환/母 권경아), 100만원
- 김시연 아녜스 (2010.11.13생
父 김대현/母 이지원), 36만원
- 홍연우 사도요한 (2012.10.23생
父 홍승완/母 조혜진), 100만원
- 정상윤 (2011.10.30생
父 정경순/母 김정은), 10만원
- 정재윤 (2011.10.30생
父 정경순/母 김정은), 10만원
- 한시은 프란체스카 (2012.10.20생
父 한상윤/母 모하현), 100만원
- 신초아 (2012.11.03생
父 신덕호/母 권경민), 50만원
- 김예은 리디아 (2012.10.26생
父 김성준/母 민수경), 365천원
- 김아론 아론 (2013.08.07생
父 김창욱/母 주수현), 200만원
- 심윤우 베네딕토 (2013.07.15생
父 심안성/母 김소정), 금액비공개
- 이예준 (2012.11.21생
父 이승태/母 김주연), 20만원
- 남재인 (2012.10.27생
父 남우준/母 신유리), 30만원
- 고대원 (2012.11.07생
父 고성호/母 장숙현), 100만원
- 최지호 (2012.11.06생
父 최호석/母 김민정), 30만원
- 최안나 안나 (2012.12.01생
父 최용주/母 강민정), 100만원
- 김나을 (2012.11.02생
父 김정년/母 박보나), 100만원
- 김태빈 루가 (2012.10.08생
父 김선규/母 김정옥), 100만원
- 김다은 (2013.07.18생
父 김대업/母 김현정), 10만원
- 송효주 (2013.09.03생
父 송충현/母 김지연), 20만원
- 김지안 (2012.11.03생
父 김정민/母 유선화), 20만원
- 김혜주 글라라 (2003.11.12생
父 김요한/母 이선화), 20만원
- 윤세을 베드로 (2012.11.17생
父 윤영진/母 이상희), 120만원
- 권승후 아론 (2012.12.21생
父 권준하/母 김민선), 100만원

- 박초월 안젤로 (2012.10.31생
父 박진선/ 母 권호정), 120만원
- 정희윤 플로라 (2012.11.24생
父 정성일/ 母 전미란), 50만원
- 양지원 (2012.10.16생
父 양윤석/ 母 이미숙), 365천원
- 정찬윤 (2012.11.16생
父 정호진/ 母 장지영), 50만원
- 박제나 제나이다 (2012.11.02생
父 박동진/ 母 정세화), 100만원
- 남우송 안드레아 (2010.07.26생
父 남상욱/ 母 이혜영), 50만원
- 남우석 필립보 (2012.02.06생
父 남상욱/ 母 이혜영), 50만원
- 박민하 엘리사벳 (2013.08.06생
父 박재현/ 母 유진아), 20만원
- 손정빈 마르코 (2012.11.06생
父 손성호/ 母 박영경), 20만원
- 이연서 (2012.11.06생
父 이종택/ 母 공경민), 30만원
- 이은서 (2013.08.01생
父 이정욱/ 母 한세영), 30만원
- 오석준 알베르토 (2010.11.15생
父 오영국/ 母 안성민), 52만원
- 송현제 (2012.12.07생
父 송영호/ 母 주정경), 100만원
- 김지울 (2010.11.18생
父 김종민/ 母 심민경), 20만원

- 김민서 사도요한 (2000.12.02생
父 김용무/ 母 조유경), 20만원
- 신재하 미카엘 (2012.11.04생
父 신영목/ 母 신혜영), 10만원
- Chloe (2012.11.10생
父 David/ 母 정지수), 10만원
- 이루리 (2012.11.12생
父 이문석/ 母 이정은), 100만원
- 강현지 (2012.11.10생
父 강남규/ 母 홍유진), 100만원
- 장근호 안드레아 (2003.10.05생
父 장성수/ 母 박지은), 50만원
- 장근우 알렉산더 (2006.03.07생
父 장성수/ 母 박지은), 50만원
- 조은채 에스테 (2012.12.16생
父 조수영/ 母 박재영), 50만원
- 이해림 플로라 (2012.10.04생
父 이정규/ 母 고은지), 30만원
- 김민서 플로라 (2012.11.24생
父 김동현/ 母 임진영), 100만원
- 이경주 (2013.06.19생
父 이지형/ 母 김효선), 50만원
- 박하람 (2013.08.08생
父 박찬용/ 母 이지영), 30만원
- 정하울 (2012.10.15생
父 정훈/ 母 최민영), 40만원
- 김경민 미카엘라 (2002.10.25생
父 김용무/ 母 최정안), 100만원

- 김동현 가브리엘 (2010.05.28생
父 김용두/ 母 최정안), 100만원
- 이종민 라파엘 (2007.11.18생
父 이동균/ 母 김민경), 60만원
- 다숨이 (출산예정일 2014.01.06
父 김진/ 母 이채형), 10만원
- 이서울 다투 (2012.11.22생
父 이두희/ 母 성애현), 30만원
- 김대엽 (2012.11.18생
父 김민우/ 母 김연희), 122만원
- 박연우 (2013.01.02생
祖父 박인준 스테파노), 50만원
- 박나우 (2013.01.02생
祖父 박인준 스테파노), 50만원
- 서서현 프란치스코 (2013.08.07생
父 서정호/ 母 김민숙), 30만원
- 심울 (2013.08.14생
父 심현보/ 母 김지은), 10만원
- 백민울 (2012.11.07생
父 백영민/ 母 한은미), 100만원
- 황인서 엘리사벳 (2012.11.17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365천원
- 서지민 세실리아 (2011.11.23생
父 서호균/ 母 홍승희), 10만원
- 서문기 (2013.10.28생
父 서호균/ 母 홍승희), 20만원
- 김라윤 (2012.11.19생
父 김정환/ 母 이은주), 100만원

- 박진현 사무엘 (2007.11.26생
父 박동범/ 母 윤형금), 50만원
- 박지현 다니엘 (2007.11.26생
父 박동범/ 母 윤형금), 50만원
- 김초찬 안드레아 (2012.11.26생
父 김대진/ 母 강태규), 10만원
- 하이현 (2013.09.10생
父 하재화/ 母 김준선), 10만원
- 김시아 (2013.08.20생
父 김민우/ 母 진민정), 30만원
- 서도윤 사도요한 (2012.11.24생
父 서영일/ 母 허경랑), 30만원
- 박선우 (2013.08.16생
父 박찬일/ 母 이다영), 30만원
- 윤도영 그라시아 (2011.12.18생
父 윤병찬/ 母 이혜원), 500만원
- 손유람 알베르토 (2010.01.18생
父 손영교/ 母 조정현), 10만원
- 오승현 (2013.10.04생
父 오재준/ 母 이현정), 100만원
- 류동규 마티아 (2004.05.24생
父 류영우/ 母 조은정), 1,000만원
- 이선우 (2012.11.16생
父 이주호/ 母 유정민), 20만원
- 김동민 비오 (2010.11.19생
父 김순대/ 母 임명자), 50만원
- 김동은 레오 (2012.10.16생
父 김순대/ 母 임명자), 50만원

기념일 기부

‘건강하게 한 해 잘 자라줘서 고마워!’ 첫기부에 이어서 꾸준히 생일때마다 두번째, 세번째 기부합니다.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등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아이 이름이 적힌 후원 증서를 안겨주면 자연스레 ‘나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 기억나지 않는 장남감이나 옷 선물을 받은 것보다 1년에 한번씩 기부할 때 받은 감사장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보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21

생애
첫
기부

두번째기부

- 최은승 (2011.09.05생
父 최충문/ 母 이화진), 10만원
- 유지연 크리스티나 (2012.09.15생
父 유진수/ 母 이미정), 200만원
- 김이현 (2011.09.21생
父 김수형/ 母 홍은정), 100만원
- 천수정 로사 (2013.04.06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10만원
- 김지우 도미니코 (2011.08.31생
父 김은한/ 母 장영림), 10만원
- 김다울 (2012.10.19생
父 김진호/ 母 이선희), 20만원
- 이승현 (2012.10.04생
父 이도성/ 母 강신영), 15만원
- 이승준 레오 (2011.03.14생
父 이영철/ 母 남영주), 365천원
- 유준오 루가 (2012.10.25생
父 유경표/ 母 김지현), 121,025원
- 유수원 유스타 (2012.10.25생
父 유경표/ 母 김지현), 121,025원
- 이지안 소피아 (2010.03.15생
父 이승창/ 母 강수하), 100만원
- 정윤석 가브리엘 (1988.10.12생
父 정우동/ 母 임현숙), 10만원
- 조서영 미카엘라 (1996.09.08생
父 조훈/ 母 송주은), 50만원

- 조훈/ 母 송주은), 50만원
- 조형준 가브리엘 (2002.06.14생
父 조훈/ 母 송주은), 50만원
- 김태연 소화테레사 (2009.06.01생
父 김홍석/ 母 이혜경), 100만원
- 최매희 (2011.11.07생
父 최생기/ 母 김자경), 222,222원
- 고영훈 (2013.04.13생
父 고윤석/ 母 성민정), 20만원
- 이우찬 안토니오 (2007.11.07생
父 이운주), 24만원
- 최하영 비아 (2012.03.29생
父 최호진/ 母 갈희선), 10만원
- 김상찬 (2004.09.28생
父 김동용/ 母 김경희), 20만원
- 장하준 안드레아 (2009.02.21생
父 장성우/ 母 강서훈), 50만원
- 장휘준 빈첸시오 (2011.11.30생
父 장서우/ 母 강서훈), 50만원
- 이세인 사무엘 (2012.11.18생
父 이윤준/ 母 우혜영), 70만원
- 황인예 발레리아 (2008.04.26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15만원
- 황인지 스텔라 (2010.02.23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15만원
- 장수아 (2011.06.01생
父 장진성/ 母 이정화), 30만원

- 장진성/ 母 이정화), 30만원
- 김주형 라파엘 (2006.11.28생
父 김성우/ 母 최정란), 10만원
- 심상균 레오 (2007.06.06생
父 심주완/ 母 김은주), 50만원
- 김서진 마리아 (2012.08.14생
父 김성봉/ 母 윤려진), 10만원
- 김재희 스텔라 (2008.12.20생
父 김세윤/ 母 김선민), 10만원

세번째기부

- 나소운 세라피나 (2010.08.10생
父 나상오/ 母 우상희), 30만원
- 최진현 프란치스코 (2010.09.10생
父 최범수/ 母 김미숙), 10만원
- 김도겸 스테파노 (2003.01.03생
父 김영현/ 母 나귀연), 20만원
- 김태겸 가브리엘 (2007.02.25생
父 김영현/ 母 나귀연), 20만원
- 김민준 루카 (2010.10.23생
父 김우진/ 母 강선모), 10만원
- 김민준 (2011.11.10생
父 김창환/ 母 이인영), 30만원
- 전소은 가브리엘라 (2010.09.16생
父 전일수/ 母 안미경), 30만원

- 현동훈 비오 (2011.09.28생
父 현동훈/ 母 남희은), 25만원

네번째기부

- 천유정 안젤라 (2009.10.19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10만원
- 천승민 베드로마리아 (2011.02.21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10만원

다섯번째기부

- 현유림 파우스티나 (2009.08.26생
父 현준호/ 母 남희은), 25만원
- 이준수 사도요한 (2008.10.11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100만원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 정우동 사도요한, 임현숙
로스리아 10만원
- 김우현 알폰소, 임두리 (결혼기념일
2013년 12월 7일), 100만원
- 김승범, 이소인 스텔라 (결혼기념일
2013년 11월 23일), 30만원

고인의 아름다운 유산 기부

- 故 조남승 (忌日 2013년 10월
09일), 100만원

OBOS NEWS

띠앗누리 17기 선발 및 활동 시작



본부의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띠앗누리 17기'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띠앗누리 17기 단원들은 11월 23(토)~24(일), 1박 2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차례의 배움터, 현지활동 및 국내체험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티 현장 방문 실시



지난 12월 8일(일) ~ 18일(수) 본부 국제협력팀은 2010년 대지진 이후 피해복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10개 학교 건축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이티 카리타스와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현지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재까지 완공된 6개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후속사업 및 추후 새로운 사업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부 유영자 대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영자 대리가 지난 11월14일(목),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2013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컨퍼런스'에서 생명나눔 및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3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 실시



본부가 2006년부터 백혈병과 난치병으로 아파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가 지난 12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희의료원 17층 병원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20개 병원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1400여명과 본부의 지원을 받아 회복한 환자 150여 명에게도 담요와 탁상달력, 카드 등의 성탄 선물이 희망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자살예방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

어제 서울 풍납동성당과 삼성동성당을 비롯해 강원도 양구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포천 대진대학교, 천안 나사렛대학교, 서울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등 교회안팎의 본당과 학교, 기관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이 펼쳐졌고, 전국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봉사자 피정 개최

지난 11/30(토), 명동 가톨릭회관 426-1호에서 센터 상담봉사자 피정이 개최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봉사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간은 센터장 김보미 수녀님과 함께 하는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우지원 현황 (2013년 9~11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단위: 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지원금액
chaOOOky(남/만10세)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서울성모병원	1,000
허○서(남/만37세)	말기신장병(신장이식)	의정부성모병원	700
전○환(남/만56세)	폐암	국립암센터	300
오○복(남/만56세)	간경화증(간이식)	고대안암병원	900
김○주(여/만16세)	모야모야병	천안단국대병원	500
장○준(남/만22세)	뇌종양	국립암센터	1,000
김○래(남/만39세)	다발성 경화증	국립암센터	1,000
김○근(남/만42세)	말기신장병(신장이식)	의정부성모병원	800
서○우(남/만10세)	구순구개열	서울대치과병원	800
박○(남/만72세)	전립선암	국립암센터	260
포○○라(남/만25세)	뇌종양	부천성모병원	1,000
황○순(여/만62세)	척추골수염	중앙대학교병원	400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이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2013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일괄발급 안내

1년 동안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 상 :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기후원 또는 1회 이상 일시 후원하신 후원금 내역이 있는 회원 전체
- 발송기간 : 회원님의 등록주소지로 2014년 1월 중 일괄 발송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직접 출력
- 문 의 : 02)727-2285, 2288

※ 주소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3.9 ~ 2014.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